

대출 늘고 순이자마진 개선 기대... 금융지주株 신고가 행진

이달 들어 KRX 은행지수 13.7% ↑
가계대출 잔액 전월비 6.9조 증가
KB금융, 사상 최대 분기 실적 예상



서울 시내에 시중은행 ATM기들이 모여있는 모습 /뉴시스

국내 금융지주주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금리인하 기대감이 후퇴하면서 실적 성장이 예상되고, 국내 증시로 돌아온 외국인 투자자들이 금융주를 대거 사들인 영향으로 풀이된다. 코스피 시총 13위인 KB금융은 시총 10위권 진입을 노리고 있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B금융은 장중 18만2700원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다. 이날 종가 기준으로 BNK금융지주(2.50%), JB금융지주(2.54%), 하나금융지주(2.09%) 등도 2%대 강세를 보였다. 최근 은행주 흐름도 견조하다. 이달 들어 KRX 은행 지수는 13.7% 뛰었다.

시장에서는 커지고 있는 금리 상승 압력이 은행주의 추가 흐름을 이끌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일반적으로 금리가 오르면 은행의 순이자마진(NIM) 개선 기대가 커지는 반면, 증권사는 채권 평가손실 우려

와 투자 심리 위축 영향을 받는다. 증권가 전문가들도 “금리가 급등하는 구간에서는 증권주보다 은행주가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고 했다.

각국 중앙은행이 긴축 속도를 높이면서 전 세계의 국고채 금리가 튀어 오르고 있다. 유럽 등 주요국 중앙은행도 다시 긴축 기조로 돌아섰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금리를 내릴 거란 기대감도 빠르게 후퇴했다. JP모건은 “매우 정밀하게 분석

해 보면, 여러 다양한 통화정책 준칙을 평균 내어 산출한 적정 연방기금금리(기준금리) 범위는 4.0~4.85%로 나타난다”며 “이는 현재의 금리 범위인 3.5~3.75%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추정했다. JP모건은 “미국 3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지난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5%를 넘어선 적이 없었으나, 최근 그 임계값을 돌파했다”고 지적했다. 신한은 한국은행 총재 등은 최근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을 잇따라 시사했다. 시

장에서는 한국 기준금리의 7·8월 연속 인상뿐 아니라 한은이 한 번에 0.50%포인트를 올리는 ‘빅스텝’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실적 기대감도 크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금융 시장 동향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 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1181조8000억원으로, 4월 말보다 6조9000억원 증가했다. 지난 2024년 8월(9조2000억원 증가) 이후 1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최정욱 하나증권 연구원은 “홍콩 ELS 과징금 환입 효과와 비은행 부문의 이익 기여 확대에 힘입어 KB금융과 신한지주의 실적이 시장 전망치를 크게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최 연구원은 2분기 은행권 전체 순이익이 전 분기 대비 10.3% 증가한 7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그는 “은행 NIM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2분기 평균 증권거래대금도 1분기 대비 약 30%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수수료 이익 역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특히 KB금융의 경우 2분기 순이익이 1조97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

해 지주사 설립 이후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하나증권은 KB금융의 목표주가를 기존보다 상향한 22만원으로 제시했다.

김재우 삼성증권 연구원도 “기업과 가계의 대출 수요가 모두 늘어나면서 은행의 가격 경쟁 부담이 완화되고 있다”며 “대출 재원도 저원가성 수신 중심으로 조달되고 있어 대출 성장과 NIM 회복이 동시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외국인들도 금융지주를 사고 있다. 이달 들어 KB금융, 신한지주 등이 외국인 순매수 상위 20위권에 포함됐다.

다만 환율 상승이 변수다. 원·달러 환율이 여전히 1500원대를 울돌면서 은행주의 자본 건전성 악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환율이 높은 수준에서 장기간 유지될 경우 주요 은행지주의 핵심 자본 비율인 보통주자본비율(CET1)이 소폭 하락할 수 있다. 특히 CET1은 주주 환원 정책과 직결되는 핵심 지표인 만큼 고환율이 장기화할 경우 은행주 투자 심리에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

/허정윤 기자

zolkova@metroseoul.co.kr



metro

스페이스X, IPO 흥행에 그린슈 전량 행사

공모 규모 857억달러로 확대
공모가 대비 주가 19.3% 상승



스페이스X /AP·뉴시스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X(SpaceX)가 기업공개(IPO) 흥행에 힘입어 초과배정 옵션(그린슈)을 전량 행사하면서 최종 자금 조달 규모를 857억달러(약 130조원)로 확대했다.

15일(현지시간) 외신 등에 따르면 스페이스X는 IPO 공동주관사들이 보유한 초과배정 옵션을 모두 행사하면서 총 6억3889만주의 A종 보통주 발행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이번 IPO를 통한 최종 조달액은 당초 계획했던 750억달러보다 107억달러 늘어난 857억달러로 집계됐다.

앞서 스페이스X는 지난 11일 공모가를 주당 135달러로 확정하고 보통주 5억5556만주를 매각해 약 750억달러를 조달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주관사들이 보유한 8333만주 규모의 초과배정 물량이 추가로 발행되면서 전체 공모 규모가 확대됐다.

그린슈로 불리는 초과배정 옵션은 대형 IPO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제도다.

주관사가 공모 물량의 최대 15% 범위 내에서 추가 주식을 매각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상장 이후 주가가 공모가를 웃돌 경우 주관사는 해당 옵션을 행사해 추가 주식을 확보하고, 반대로 주가가 하락할 경우 시장에서 주식을 매입해 수급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번 그린슈 행사 배경에는 상장 직후 나타난 강한 투자 수요가 자리하고 있다.

스페이스X 주가는 나스닥 상장 첫 거래일인 지난 12일 공모가 대비 19.3% 상승한 채 거래를 마쳤다. 시장이 공모 물량을 무난히 소화한 데 이어 추가 공급 물량까지 흡수할 수 있다는 판단이 가능해지

면서 주관사들은 초과배정 옵션을 전량 행사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사례가 스페이스X에 대한 투자자들의 높은 기대감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으로 평가한다. 실제로 이번 IPO는 당초부터 조달 규모 기준 역대 최대 수준으로 주목받았으며, 그린슈 행사까지 더해지면서 규모가 한층 커졌다.

그린슈는 단순히 기업의 자금 조달 규모를 늘리는 수단이 아니라 상장 초기 주가 변동성을 완화하는 장치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주관사들은 상장 직후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물량을 공급하거나 시장에서 주식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가격 급등락을 조절할 수 있다. 투자 수요가 강할 경우 추가 물량 공급을 통해 과도한 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반대로 수요가 약할 경우 시장 매수를 통해 추가 하락을 완화하는 구조다.

이번 IPO에는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시티 그룹 등이 공동주관사로 참여했다. /허정윤 기자

서학개미, AI 반도체·한국 증시 동시 베팅

해외주식 Click

SOXL 일주일새 5.6억달러 순매수

국내 투자자(서학개미)들이 미국 인공지능(AI) 반도체주와 한국 증시 상승 가능성에 동시에 베팅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두고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지만 성장주 중심의 투자 심리는 여전히 견조한 모습이다.

16일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는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미국 상장 반도체 3배 레버리지 ETF인 SOXL을 5억6144만달러 순매수하며 해외주식 순매수 1위에 올랐다. 한국 증시를 3배로 추종하는 KORU는 1억5245만달러 순매수로 뒤를 이었다.

이 밖에도 마이크로, 마벨테크놀로지, TQQQ, QLD, 마이크로 2배 레버리지 ETF(DXN MU Bull 2X ETF), QQQ 등이 순매수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순매수 상위 종목들 살펴보면 투자자들의 관심이 여전히 AI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관련 종목에 집중돼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SOXL은 엔비디아와 AMD, 브로드컴, 마이크로 등 주요 반도체 기업들로 구성된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를 3배로 추종하는 상품이다. 최근 AI 투자 확대와

데이터센터 증설 기대가 이어지면서 관련 종목에 대한 낙관론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마이크로와 마이크로 2배 레버리지 ETF가 동시에 상위권에 오른 점도 눈길을 끈다. 시장에서는 고대역폭메모리(HBM)를 중심으로 한 메모리 업황 개선 기대가 지속되면서 관련 기업들의 실적 개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결과로 보고 있다. 마벨 역시 AI 네트워크 반도체 수요 확대의 대표 수혜주로 꼽힌다.

동시에 서학개미들은 한국 증시 상승에도 적극적으로 베팅했다. KORU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해 국내 대표 종목들로 구성된 MSCI Korea 지수의 일간 수익률을 3배로 추종하는 상품이다. 최근 코스피가 9000포인트를 목전에 둔 가운데,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 추가 상승 가능성에도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보관 금액은 지난해 9월 1555억달러 수준에서 올해 5월 2041억달러까지 증가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달 들어서는 1903억달러로 다소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국내 증시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음에도 미국 시장에 대한 투자 선호가 약화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허정윤 기자

미래에셋운용, ETF 토큰화 시장 진출

온도파이낸스와 업무협약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글로벌 실물자산(RWA) 토큰화 플랫폼 기업인 온도파이낸스(Ondo Finance)와 디지털자산 기반 투자상품 및 토큰화 금융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ETF 토큰화, 온체인 자산운용 인프라 구축, 글로벌 투자자 대상 디지털 투자상품 개발 등에서 협력할 계획이다.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국채, 펀드, 부동산 등 전통 자산

의 토큰화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프랭클린 템플턴(Franklin Templeton), 블랙록(BlackRock) 등 글로벌 대형 운용사들이 토큰화 사업에 진출하는 등 기관 차원의 참여가 본격화되고 있다.

온도파이낸스는 미국 국채 기반 토큰화 상품(USDY, OUSG)을 비롯한 다양한 상품을 토큰화하며 RWA 분야를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이다. Ondo의 토큰화 주식·ETF 플랫폼인 온도 글로벌 마켓(Ondo Global Markets)은 총 예치자산(TVL) 10억 달러를 돌파하였으며, 260개 이상의 토큰화 증권을 제공하고 누적 거래량 180억

달러 이상을 기록하는 등 토큰화 주식 부문에서 세계 최대 플랫폼으로 평가받고 있다.

토큰화(Tokenization)는 전통 금융자산을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토큰 형태로 표현하는 기술이다. Ondo 토큰화 ETF는 기존 ETF로 완전히 담보·뒷받침되지만, 별도의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증권 형태로 발행·거래된다. 이를 통해 24시간 거래와 실시간에 가까운 결제(T+0)가 가능해지며, 글로벌 투자자의 접근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이번 협약을 통해 아시아 자산운용사 중 최초로 기존 상장 ETF 라인업의 토큰화를 추진하며 디지털 판매채널을 확장한다. /허정윤 기자

‘KODEX AI반도체TOP2+’ SK스퀘어 편입

삼성자산운용, 6월 정기변경 완료

삼성자산운용은 이 같은 내용으로 6월 정기변경(리밸런싱)을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정기변경 이후 첫 영업일인 15일 KODEX AI반도체TOP2플러스는 하루 만에 7.15% 급등했다.

이번 6월 정기변경의 가장 큰 특징은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의 핵심 공급망인 SK하이닉스의 지분을 보유한 ‘SK스퀘어’가 포트폴리오에 새롭게 추가됐다는 점이다. SK스퀘어는 향후 AI 반도체 시장의 성장세와 궤를 같이하며 ETF 전체의 주가를 견인할 강력한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하은 기자 godhe@